

2027  
특강  
문학

##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6

### 「그 방을 생각하며, 달밤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 시 직전 보강



선생님, 「그 방을 생각하며」에서 혁명이 안 되어서 방만 바꿨다는 부분이 핵심인 건 알겠는데, 왜 하필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는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혁명의 실패는 사실 엄청 무거운 절망이잖아? 그런데 화자는 그걸 ‘가벼움’이라고 표현했어. 이건 실패의 고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경험마저 자신의 역사와 재산으로 받아들일겠다는 역설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가슴이 ‘풍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지.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 방을 생각하며」는 4·19 혁명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단다. 그래서 이 시는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갖는 참여적 성격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성찰적, 비판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지.



아, 그래서 화자가 계속 자기를 반성하는 느낌이 들었군요! 표현상의 특징은 어떤 게 중요한가요?

가장 큰 특징은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과거에 지향했던 바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는 점이야. 예를 들어 과거의 ‘달콤한 의지’와 현재의 ‘쓰디쓴 담뱃진 냄새’를 대비시켜 씁쓸한 정서를 강조하지. 또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처럼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 아까 말했던 역설적 표현도 꼭 다시 확인하고!



그렇군요! 그럼 「달밤」은 어떤 것을 눈여겨보면 될까요?

「달밤」은 삶의 고통과 고독을 내적 순수성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야. 이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립적인 의미 구조란다. **부정적 현실을 뜻하는 '얼은 들판', '헐벗은 옷'과 내면의 순수성을 뜻하는 '달빛'을 대립시켜서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단다.



「달밤」은 특히 **물음의 형식**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마지막 행을 '달빛 달빛'**이라는 명사로 마무리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맑고 깨끗한 세계에 대한 지향을 강조**한단다.



2027  
특강  
문학

##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6

### 그 방을 생각하며, 달밤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가)

**혁명**(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은 안 되고 [ 나는 **방**(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 화자의 모순과 괴리가 드러나는 공간)만 바꾸어 버렸다 ]([ ]: '방만 바꾸어 버렸다'는 표현은 **혁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일상의 공간에 안주하게 된 자신을 자책하는 표현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혓소리**(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의식)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 ]: 화자의 자기 비판적, 자조적 태도)

▶ 1연: 방만 바뀐 삶에 대한 자책

[ 나는 **모든 노래**(혁명의 정신)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 ]: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혁명의 열정과 정신을 그 방에 남기고 떠났기 때문임.)

**그 방의 벽**(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혁명의 노래)이

**혓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혁명은 실패했지만, 혁명에 대한 노래는 화자의 가슴 속에 아직 남아있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좌절감을 느끼는 화자)

▶ 2연: 열정적이던 과거의 삶과 메마른 현재의 삶의 대비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1행의 반복)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모든 노래를 그 방에 두고 왔으므로 펜은 녹슬고 뼈와 광기만 남음. '녹슬은 펜'은 **혁명을 위해 헌신했던 화자의 당당한 자부심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 **이 가벼움**(역설적 발상. 혁명의 실패로 인한 무거운 실망감을 가벼움으로 여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 ]: 실패한 혁명의 결과가 모여 역사를 이룬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함.)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 >: **실패의 경험을 역설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3연: 혁명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반복되는 문장의 어미를 바꾸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나타냄.)

나의 입속에는 [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 ]: '쓰디쓴'과 '달콤함'을 대비하여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 4연: 힘들고 고된 현재의 삶

[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 ]: 과거의 화자를 지탱해 주던 것들의 상실)

[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 앞으로의 삶을 희망적 태도로 바라보고 자아를 모색하는 화자의 자세. 혁명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을 벗어남. **혁명의 실패로 모든 기대를 잃은 후 현실에 순응하며 느끼는 세속적인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라**

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 5~6연: 혁명의 실패에서 비롯된 좌절감에서 벗어난 기쁨  
- 「그 방을 생각하며」

(나)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바램. 자신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남.)

**[ 내 보여 주리라**(의지적 표현. 화자는 자신의 본질, 달빛, 그림자,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고자 함.)

저 **얼은 들판**(↔ 달빛. 부정적 현실) 위에 내리는 **달빛**(순수한 삶의 자세)을.

얼은 들판을 걸어가 **한 그림자**(고통을 인내해 가며 내면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자세. 고독한 자아의 모습)를. ]([ ]:  
도치)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삶에 대한 성찰적 자세)

- ▶ 1~5행: 얼은 들판을 걸어가 **화자의 모습과 회의적 질문**

**친구 몇몇 친구 몇몇**(동일한 시구 반복. 화자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 **그들에게는**

**[ 이제**(달빛이 비추는 들판을 걷는 것이 외로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친구 몇몇 친구 몇몇'에게 보여 주려는 시점)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달빛이 비추는 길. 외로움을 이겨내고 얻게 되는 내적 평화. 순수한 삶의 자세)을

보여 주게 되리. ]([ ]: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고독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내적 평화를 얻은 **성숙한 자아의 모습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 6~8행: 외로움이 아닌 길을 걷겠다는 내적 다짐

오랫동안 네 여머은 고의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설의적 표현)

두 팔 들고 **얼음**(부정적 현실)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공간)을 걸어가 갈 때

**[ 햇빛은 옷**(부정적인 현실)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내적 순수성) ]([ ]: 고독과 햇빛을 뛰어넘는 맑고 깨끗한 삶의 세계에 대한 지향. 동일한 시어의 반복.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 형성. **마지막 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맑은 삶에 대한 지향을 강조하고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 9~12행: 달빛의 맑고 깨끗한 기운의 내면적 수용과 의지  
- 「달밤」

(가)

#### 핵심 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참여적, 성찰적, 비판적, 상징적
- 주제: 혁명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그 극복
- 구성
  - 1연: 방만 바뀐 삶에 대한 자책
  - 2연: 열정적이던 과거의 삶과 메마른 현재의 삶의 대비
  - 3연: 혁명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
  - 4연: 힘들고 고된 현재의 삶
  - 5~6연: 혁명의 실패에서 비롯된 좌절감에서 벗어난 기쁨
- 특징
  -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과거에 지향해온 바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냄.
  -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 역설적 발상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함.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1960년 10월에 쓰였다. 이 시기는 4·19 혁명으로 민주당이 집권하였으나 혁명 정신이 이어지지 못하고 혼란상을 띠고 있었던 때이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화자는 ‘혁명엔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고 말하며 혁명 정신의 변질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실망감을 화자는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등의 반어적 표현과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행에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여전히 혁명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 핵심 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의지적, 상징적, 감각적
- 주제: 내적 순수성의 인식을 통한 맑고 깨끗한 삶의 지향
- 구성
  - 1~5행: 얼은 들판을 걷어가는 화자의 모습과 회의적 질문
  - 6~8행: 외로움이 아닌 길을 걷겠다는 내적 다짐
  - 9~12행: 달빛의 맑고 깨끗한 기운의 내면적 수용과 의지
- 특징
  - 대립적인 의미 구조(얼은 들판, 헐벗은 옷 ↔ 달빛)가 나타나 있음.
  -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
  - 물음의 형식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음.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에서는 삶에서 겪는 고통, 고독, 헐벗음은 우리 자신의 내적 순수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얼은 들판, 헐벗은 옷’과 ‘달빛’이라는 대립적 시어를 구사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순수 영혼에의 지향 의식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얼은 들판’ 위의 ‘달빛’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간직해야 할 맑고 순수한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6

그 방을 생각하며, 달밤 기출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  
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  
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그 방을 생각하며」

(나)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 주리라  
저 얼은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얼은 들판을 걷어가는 한 ㉥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친구 몇몇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 주게 되리.  
오랫동안 네 여머온 고의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 「달밤」

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혁명의 실패에 따른 화자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② ㉡: 혁명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을 의미한다.
- ③ ㉢: 혁명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에서 비켜서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 혁명에 가담하지 않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을 의미한다.
- ⑤ ㉤: 혁명의 실패로 인한 화자의 씁쓸한 정서가 드러난다.

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타인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명령형 어미를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확신하고 있다.
- ③ 공간의 변화를 통해 혁명 정신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자책감과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3. (가)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 화자의 의식이 머무는 공간이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상징한다.
- ② ‘모든 노래’: 과거 화자가 품었던 뜨거운 혁명 정신과 열정을 의미한다.
- ③ ‘헛소리’: 과거의 가치가 현재의 무기력한 상황에서 공허하게 느껴짐을 나타낸다.
- ④ ‘녹슬은 펜’: 혁명을 위해 헌신했던 화자의 당당한 자부심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담뱃진 냄새’: 화자의 고달프고 쓸쓸한 현실적 고뇌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4. (나)와 <보기>의 공통적인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를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눈길」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느낌과 내면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명령형 어조로 엄숙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생활 속에서 시적 대상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다.
- ④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5.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자신만의 고립된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 ② 타인의 부름을 거부하며 내면의 우울함을 심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③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순수한 삶의 자세를 지향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 ④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세속적인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 ⑤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현재의 초라한 처지를 비관적으로 인식한다.

**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괴리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명령형 어미를 반복하여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화자의 인식이 비관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암담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삶의 무상함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7~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가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  
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A]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 ]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그 방을 생각하며」

(나)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 주리라  
저 얼은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얼은 들판을 걸어가서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친구 몇몇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 주게 되리.  
오랫동안 네 여머온 고의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  
가.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헛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 「달밤」

**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정적 상황을 나열하여 화자의 허탈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좌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절망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과거 회상을 통해 희망을 상실한 현재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바람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8. (가)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② 실패의 경험을 역설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
- ④ 상실된 가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9. (가)의 방을 바꾼 행위에 담긴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진취적인 삶을 위해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 ② 혁명의 완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후퇴했음을 암시한다.
- ③ 내면의 성숙을 통해 고독을 즐기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 ④ 근대적 문명을 수용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음을 뜻한다.
- ⑤ 혁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일상의 공간에 안주하는

게 된 자신을 자책하는 표현이다.

**10. (나)의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함.
- ② 화자가 타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희생적 존재임을 나타냄.
- ③ 화자가 성찰을 통해 느끼는 고독한 내면을 나타냄.
- ④ 미래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가질 수 없는 화자의 불안감을 의미함.
- ⑤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고 자연에 은둔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냄.

**11.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의 형식을 취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②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③ 도치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 ④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한다.
- ⑤ 감각의 전이를 활용한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12.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적 성격의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명령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독자에게 특정 행동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 ③ 색채 대비를 통해 인간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을 대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유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자의 슬픔을 영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3. (가)와 (나)의 화자의 태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②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과거의 인연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미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현실의 고통에 체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 방을 바꾸었으며, (나)의 화자는 명예를 위해 얼은 들판을 걷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㉔은 과거에 혁명에 대해 낭만적으로 인식했던 태도를 가리킬 뿐, 혁명에 가담하지 않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①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로 나타나는 혁명의 소리를 ‘헛소리’로 인식하는 것에서 혁명 실패에 따른 화자의 좌절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② ‘노래’는 화자가 가지고 있었던 혁명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을 의미하며, 혁명이 실패해 좌절한 화자는 노래를 ‘그 방’에 두고 나온 것이다.
- ③ 혁명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가볍게 인식하고, 재산으로 삼으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담뱃진 냄새’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와 대조되어 혁명 실패에 대한 화자의 쓸쓸함을 나타낸다.

### 2. 정답 ④

1연과 3연에서 반복되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라는 구절은 4연에서 ‘바꾸었지만’으로 변주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자조적인 태도가 점차 새로운 자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① 타인과의 연대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싸우라’, ‘일하라’와 같은 명령형 표현은 과거에 가졌던 혁명 정신의 실천 의지를 회상하는 장치일 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③ [매력적인 오답] ‘방만 바꾸어 버렸다’라는 표현은 혁명 실패에 따른 자책을 드러내는 것이지, 혁명 정신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⑤ 색채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 3. 정답 ④

‘녹슬은 펜’은 혁명의 노래를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린 화자의 초라하고 무력한 현재 상태를 형상화한 것이며, 이를 자부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 ① ‘방’은 화자가 혁명에 실패하고 안주하게 된 공간으로, 화자의 내면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② ‘모든 노래’는 화자가 예전의 방(그 방)에 두고 온 혁명의 정신을 상징한다.
- ③ ‘헛소리’는 혁명의 구호들이 의미를 잃고 들리는, 화자의 자조적 인식을 반영된 표현이다.
- ⑤ ‘쓰디쓴 담뱃진 냄새’는 지향하던 가치(달콤한 의지)와 멀어진 채 살아가는 화자의 쓸쓸한 현실을 후각적으로 부각한다.

### 4. 정답 ①

<보기>는 ‘눈 내리는 풍경’을 통해, (나)는 ‘달빛’을 통해 화자의 느낌과 내면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보기>는 마음의 평온, (나)는 화자의 순수한 내면, 깨끗한 정신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와 (나) 모두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③ (나)와 <보기> 모두 생활 속에서 시적 대상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
- ④ <보기>와 (나) 모두 후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와 <보기>는 계절감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

### 5. 정답 ③

(나)의 화자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외로움이 아닌 길’을 걷겠다는 다짐과 함께 맑고 깨끗한 삶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 ① 화자는 누군가 혹은 몇몇 친구에게 달빛, 그림자, 외로움이 아닌 길 등을 보여주려 하므로 외부 세계와의 단절된 태도로 보기 어렵다.
- ② 타인의 부름을 거부하거나 내면의 우울함을 심화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내적 순수성,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지 세속적인 명예가 아니다.
- ⑤ 현재의 초라한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6. 정답 ①

(가)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와 ‘쓰디쓴 담뱃진 냄새’를 대비하여, 화자가 과거에 지향해 온 혁명적 가치

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고된 현실 사이의 괴리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나)는 ‘보여 주리라’와 같은 의지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을 뿐 명령형 어미를 반복하여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매력적인 오답]** (가)는 ‘방’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화자의 의식 변화를 드러내고 (나)는 ‘얼은 들판’이라는 배경이 나타나지만, 두 작품 모두 공간의 구체적인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거나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④ (가)는 혁명이 좌절된 상황에서 ‘모든 노래를 그 방에 남기고 왔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실망감과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성격이 강하며 현실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마지막 행에서 ‘달빛’이라는 명사를 반복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여운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는 삶의 무상함이나 회의적 정서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삶의 세계에 대한 지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7. **[정답]** ④

구체적인 과거 회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매력적인 오답]**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에서 부정적 상황을 나열하고 있으며, 혁명이 실패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허탈감이 드러난다.

②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의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좌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에는 혁명의 실패로 인한 실망감을 ‘재산’으로 삼는다는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

⑤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은 미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바람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쓸쓸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8. **[정답]** ②

화자는 혁명의 실패로 인한 무거운 실망감을 ‘가벼움’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재산’이자 ‘역사’로 삼는

다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좌절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보다 현재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③ 역사적 인물과의 동일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는 것은 정신적 성찰의 결과이지 세속적 욕망과는 거리가 멀다.

⑤ 인간 사회의 부조리보다는 화자 자신의 내면적 성찰과 혁명 정신의 퇴색을 다루고 있다.

9. **[정답]** 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는 표현은 시대적 과업인 혁명은 이루지 못한 채, 방 바꾸기와 같은 사소한 생활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는 화자의 자기 비판적 태도를 상징한다.

① 혁명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의 변화이므로 진취적인 삶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② 전략적인 후퇴가 아니라 혁명의 좌절과 그에 따른 자책을 표현하고 있다.

③ 고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실패한 것에 대한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④ 물질적 풍요에 대한 언급은 확인할 수 없다.

10. **[정답]** ③

a는 ‘얼은 들판’을 홀로 걷어가는 화자가 달빛을 받아 생기는 것으로 화자 영혼의 다른 측면 즉, 시적 화자의 고독한 내면 풍경을 드러낸다.

① ‘그림자’를 화자의 고독한 삶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정적 상황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② 화자의 희생적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화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순수함을 추구하는 자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는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다.

11. **[정답]** ⑤

(나)에서 시각과 촉각 이미지가 활용되고는 있으나,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① 화자가 질문의 형식을 취하여 자신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친구 몇몇’, ‘달빛 달빛’ 등 시어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보여 주리라’ 뒤에 보여주는 대상들을 나열하여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들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마지막 행을 ‘달빛 달빛’이라는 명사로 마무리하여 맑은 삶에 대한 지향을 강조하고 달빛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타난 ‘얼은 들판’을 걷는 행위는 순수한 삶을 위한 의지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12. 정답 ①

(가)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와 ‘쓰디쓴 담뱃진 냄새’라는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와 괴리된 현실을 드러내며, (나)는 ‘얼은 들판’, ‘혈벗은 옷’과 ‘달빛’의 대립적 구조를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순수한 지향 의식을 보여준다.

② (가)에서 ‘싸우라’, ‘일하라’와 같은 명령형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는 혁명 정신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독자의 실천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며, (나)에는 명령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색채 대비는 두 작품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의 ‘방을 바꾸었다’는 표현은 화자의 의식 변화를 상징할 뿐 구체적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보기는 어렵고, (나) 역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말줄임표(...)는 두 작품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13. 정답 ①

(가)는 혁명이 좌절된 상황에서 방만 바꾼 자신의 삶을 자책하며 성찰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라며 삶의 본질을 성찰한다.

② (가)는 자신에 대한 자책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오히려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면 자신의 내면 의식을 보여주겠다는 태도를 지닌다.

③ (가)는 혁명 좌절에 따른 내면 성찰이 주를 이루고, (나)는 그리움보다는 순수한 영혼의 지향 의식을 강조한다.

④ (가)의 화자는 마지막에 ‘이유 없이 풍성하다’며 희망을 보이며, (나)의 화자는 달빛을 받으며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⑤ (가)의 화자가 방을 바꾸는 것은 혁명을 실패하고 난 후의 좌절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나)에 나